



금새록·이설·전여빈(왼쪽부터)이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풋풋한 매력을 안기고 있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심화네트웍스

‘연기파’ 미녀 삼총사, 신인 맞아?

금새록 ‘미스터...’ 열혈교사 호평
이설 ‘악마가...’ 불운의 뮤즈 매력
‘멜로가 체질’ 전여빈 단번에 주연

금새록, 이설, 전여빈 등 신인 연기자들이 7월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나서며 연기 대결을 펼친다. 탄탄한 연기력을 발판 삼아 ‘드라마 스타’에 도전하게 된 이들은 신선한 얼굴에 목말랐던 방송가의 환영을 받는 분위기다.
포문을 연 연기자는 금새록. 17일 첫

방송한 OCN ‘미스터 기간제’의 주연 자리를 꿰찼다. 이설은 31일 시작하는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의 주연을 맡는다. 금새록은 중 극 열혈 체육교사 역할로, 연기자 윤규상과 호흡을 맞춘다. 이설은 남자주인공 정경호에 곡을 빼앗긴 ‘불운의 뮤즈’ 역할로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할 기대다.
두 사람 모두 작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신예다. 금새록은 2018년 KBS 2TV ‘같이 살래요’로 데뷔한 후 올해 4월 종영한 SBS ‘열혈사제’에서 활약했다. 당차고 씩씩한 매력으로 시청자에 눈도

장을 찍었다. 2016년 연기를 시작한 이설은 작년 MBC ‘나쁜 형사’와 KBS 2TV ‘나쁜 형사’ 속 사이코패스 연기로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았다.
작년 영화 ‘죄 많은 소녀’로 주목 받은 전여빈도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주연으로 나섰다. 2015년 데뷔 이후 스크린에서만 활동해온 그에게는 이번이 첫 드라마다. 짧은 경력에도 강렬한 연기 덕분에 단번에 주연으로 올라선 사례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신선한 얼굴에 대

한 호기심 어린 반응이 잇따른다. 이에 방송가는 신예 발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미스터 기간제’의 한 제작 관계자는 23일 “최근 연기자들의 스타성보다는 작품의 완성도를 받쳐주는 연기력 등을 우선시해 캐스팅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신인들을 주연으로 과감하게 뽑는 제작진이 늘고 있다”며 “당분간 ‘신인 주연’을 향한 방송가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마동석·전종서 美 영화 주연...높아진 韓 위상

마동석, 마블 ‘이터널스’ 길가메시 역할
전종서 ‘모나리자 앤 더 블러프’ 주인공
강동원·한효주 입문...이하늬도 계약

할리우드로 향하는 한국배우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미국 드라마 ‘로스트’의 주연 김윤진을 필두로 이병헌, 배우나 등 해외 활동에 이점을 가진 몇몇 배우의 도전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꾸준한 러브콜에 힘입은 배우들이 눈에 띈다. 마동석이 대표적이다. 마블스튜디오의 새 시리즈 ‘이터널스’ 주인공에 캐스팅된 그는 2016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부산행’을 선보인 뒤 해외 영화계의 관심을 모았

다. 교포 출신의 영어 구사 능력 등으로 그동안 할리우드의 출연 제안을 받아왔다. 이하늬도 지난해 미국 에이전시 WME와 계약을 체결하고 할리우드 진출에 본격 나섰다. 영화전문지인 미국 할리우드 리포트는 “이하늬는 진정한 미스코리아로, 연기자이자 한국 전통음악 보유자이면서 영어 실력까지 탁월하다”고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수현처럼 작은 역할부터 경력을 쌓아 인기 시리즈 주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수현은 2015년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짧게 등장한 직후 ‘다크타워:희망의 탑’ 등을 거쳐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주연으로 발탁돼 활약하고 있다.

배우 강동원은 안정적인 국내 활동을 잠시 멈추고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할리우드에 도전한다. “더 넓은 시장에서 쌓은 연기



마동석



전종서

경험”을 피력해온 끝에 최근 미국에서 재난 영화 ‘LA 쓰나미’ 촬영을 마쳤다. 한효주도 현재 유럽에서 첩보액션 영화 ‘본’ 시리즈의 드라마 버전인 ‘트레드스톤’ 촬영에 한창이다. 국내에서 내보인 적 없는 고난도 액션에도 도전한다.
신인의 해외 진출 길도 활짝 열렸다. 지난해 ‘버닝’으로 데뷔한 전종서는 6월 말 미국으로 출국해 8월 말까지 영화 ‘모나리자 앤 더

블러프’를 찍는다. 제작진은 오랫동안 동양인 배우를 찾은 끝에 전종서를 전격 발탁했다.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진 한국계 배우들을 통하는 사례도 있다. 윤여정과 한여리는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 ‘미나리’의 주연으로 15일 미국에서 촬영에 돌입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2010년 그때처럼...이승기, 예능·드라마 동시 공략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 제2 워너원이 보인다

8월 ‘리틀 포레스트’ 9월 ‘배가본드’ 선배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가 최정성기를 누린 2010년의 활약상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로 시선을 모은다.

이승기는 8월부터 월·화·금·토·일요일 안방극장을 접수한다. 현재 SBS 일요일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 중인 이승기는 새 예능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를 8월12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공개한다. 총 16부작인 ‘리틀 포레스트’가 끝날 즈음 신작인 금토드라마 ‘배가본드’가 방영을 시작한다. 제작진은 최근 첫 방송 날짜를 9월27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승기는 2010년 때처럼 한 편의 드라마와 2편의 예능프로그램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연하게 된다. 8월부터 11월까지 끊이지 않고 TV에 등장하는 셈이다.

2010년 이승기는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예능프로그램 ‘강심장’과 ‘1박2일’에 출연했다. 세 프로그램의 방송 시기가 겹친 9월 더욱 바쁘게 활동했다. 연기자로서 수·목요일, ‘예능인’으로는 각각 화요일과



이승기

일요일에 등장했다. 토크쇼와 리얼버라이어티 포맷 등 장르가 다른 예능프로그램을 오가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매력을 뽐내며 절정의 인기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승기의 공백 없는 활동이 자칫 시청자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그는 ‘집사부일체’ 속 자연스러움이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아이 돌보미’의 모습과 어우러져 이전과 다른 훈훈한 매력을 선보인다는 각오다. ‘배가본드’를 통해서도 처음으로 화려한 액션연기와 거친 남성미를 과시한다. 촬영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을 덜었다. ‘배가본드’가 사전 제작 방식으로 5월 모든 촬영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르고, 또 각 예능프로그램의 콘셉트도 겹치지 않아 다양한 모습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일요일에 등장했다. 토크쇼와 리얼버라이어티 포맷 등 장르가 다른 예능프로그램을 오가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매력을 뽐내며 절정의 인기를 얻었다.

‘제2의 워너원’이 탄생할 조짐이다. 최근 종영한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X1’이 ‘선배’인 워너원 못지않은 인기와 화제를 뿌리고 있다. 8월27일 공식 데뷔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모은다. 이들은 프로그램 종영 후 22일 밤 처음으로 진행된 인터넷 생방송에서 2억 건이 넘는 하트수를 받는 등 관련 콘텐츠들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개설하는 공식 팬클럽 1기 모집 해당 사이트에도 국내외 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앞서 2017년 데뷔해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낸 워너원 이상의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엑스원의 공식 데뷔 무대도 서울 구로구 고척돔이다. 엑소, 방탄소년단 등 두터운 팬덤을 확보한 가수들만 서는 대형 공연장으로, 2017년 워너원도 신인그룹으로서 파격적으로 이곳에서 2만 명을 동원해 화제를 모았다. 조만간 입장권 예매를 시작하면 워



엑스원

너원 버금가는 티켓 파워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2일 단체합숙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데뷔 무대를 준비한다. 더 이상 연습생 신분이 아니라 프로로서 첫 발을 내딛는 만큼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타이틀곡 등 데뷔 앨범 수록곡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일부 노래를 새롭게 녹음 중이다.

특히 이들은 워너원과 다른 프로젝트 활동 기간이 5년이라는 장기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최종 목표인 ‘미국 빌보드 점령’을 위해 아시아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무대로 영역을 넓혀 글로벌 활동을 노리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사기혐의 피소 당한 이상민 “사실 무근”



이상민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이상민이 A씨에게 대출을 앞선했다는 명목으로 4억 원, A씨의 업체 홍보비 명목으로 모델료 8억700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후폭풍...‘현지에서...’ 서비스 중단



이민우

그림 신화의 이민우가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출연작 tvN ‘현지에서 먹힐까? 시즌3’ 미국편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tvN은 23일 “이민우가 출연한 7회부터 12회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촬영을 마친 KBS 2TV ‘덕화TV2-덕화다방’에서도 편집됐다. 이민우는 지난해 29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구속 뒤늦게 알려져



이태임

연기자 이태임의 남편 A씨(45)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판결을 받고 11일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4년 B기업의 주주들에게 추가 부양을 위해 시세 조종을 해주겠다고 약 14억 원을 가로챘다. 3월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김장훈, 30일 3년 만에 독도 간다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30일 다섯 번째이자 3년 만에 독도에 간다. 2016년 6월 이세돌 9단과 독도나눔대국을 했던 그가 이번에는 충남외국어고 학생들과 방문한다. 23일 소속사 FX솔루션에 따르면 김장훈은 이 학교 학생 43명, 교직원 등과 29일 울릉도에 입도한 뒤 30일 오전 독도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외고와 인연은 4월 ‘독도를 가슴에 품고 세계로’란 주제로 펼친 토크 콘서트로 맺어졌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